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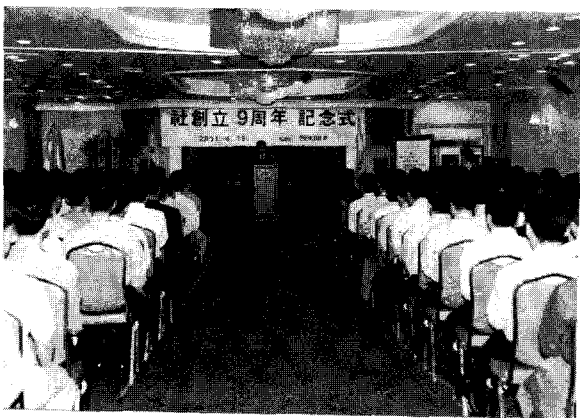
**한전KDN(주)**

**창사 9주년 기념식  
올해 매출 6000억 달성 다짐**

한 전KDN(대표 鄭然東)은 지난 4월 19일 오전 창사 9주년 기념식을 갖고 올해 매출 6000억원 달성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우수 모범직원 22명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

정연동 사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2000년도 매출구성비를 보면 한전의존도가 40%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 데 비해 민간부문의 정보기술(IT)분야의 매출이 급신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공기업 체질 극복을 위해 줄기차게 변화와 개혁을 추진, IT공기업으로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직 임원(제1대 이강연, 제2대 이호림, 감사 김일수)들이 함께 참석했다.



한편, 한전KDN은 각 가정이나 회사에서 초고속 인터넷과 케이블TV 등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장비 및 인력 보강과 복구시스템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네트워크 유지보수 혁신을 위한 종합대책’을 최근 발표했다.

한전KDN은 이번 종합대책에 따라 전국에 산재한 통신선 유지보수 요원 1,060명을 대상으로 돌발복구 5분대 기조를 재편성하는데 이어 통신선 유지보수에 필요한 주요 계측장비 220대(35억원 상당)를 올 상반기 중 신규 도입키로 했다. 또 통신선 유지보수 요원을 현재의 1,060명에서 올 연말까지 1,410명으로 33% 늘릴 계획이다.

추가 구입하는 계측장비는 광용착 접속기 등 5종으로 통신불량원인을 찾아내 끊긴 선을 잇고 노이즈 장애 등을 제거한 뒤 성능을 검사하는 장비들이며, 신규 장비 도입을 완료할 경우

한전KDN은 지난해 말보다 50% 늘어난 660대를 보유, 더욱 빠르게 통신선 유지보수를 실시하게 된다.

한전KDN은 한전 파워콤 두루넷 하나로통신 등 회원임대사업자의

전국 통신케이블 12만 5천km와 이를 중간 연결하는 기지국 및 사업장 설비 2만 3천여개를 연중무휴, 하루 24시간 유지보수 관리하고 있다. 통신선 유지보수와 관련한 연간매출액은 지난해 606억원에 달했다.

한전KDN은 이 같이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돌발복구 시스템을 개선, 복구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리는 광케이블의 단선사고의 경우 종전의 180분에서 앞으로는 90분으로 복구시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시킬 계획이다.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전기관련단체장 간담회 개최**

전기계는 제46차 전기관련단체장 간담회를 지난 4월 12일 서울 신사동 만리장성에서 갖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이사장 최병철) 주최로 열린 이날 전기단체장 회의에서는 최근 전기계의 실추된 위상을 되찾자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전기인대회 개최’와 ‘특수장학재단 설립’을 심도 있게 토론했다.

권옥현 대한전기학회장 주재로 진행된 현안 토론회에서 단체장들은 전기분야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어 관계당국이 규제개혁의 허울을 씌워 전기부문을 건

축법으로 일관하려 하고 단순한 시장 경제 논리로만 해석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대국민 홍보차원에서 '전기인대회' 개최를 다짐했다.

단체장들은 또 현재 IT산업 등 첨단 산업에 밀려 기간산업인 전기계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각 대학에서도 전기공학을 전공하는 빈도가 떨어져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특수장학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각 단체가 협조해 나가자고 결의했다.

단체장 회의에는 장동수 대한전기협회 상근부회장, 권옥현 대한전기학회 회장, 남병주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안인순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회장, 권영한 한국전기연구원장, 공창덕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조정홍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 최병철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8인이 참석했다.

한편 단체장들은 이날 김광배 전임 대한전기학회장에게 그 동안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패를 수여했다.

## LG산전(주)

### 전동공구 중국 영업실적 호조

LG산전(대표:金正萬 www.lgis.co.kr)의 전동공구 영업이 올

해 들어 중국시장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다.

LG산전은 올해 중국시장에서 전동공구 1/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8% 신장한 124만불을 달성했으며 올해 말까지 전년 대비 50% 신장한 약 5백만불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LG산전의 4인치 그라인더는 중국시장에서 보쉬(BOSH·독일), 마끼다(MAKITA·일본), 히타치(HITACHI·일본), 드래곤(DRAGON·중국) 등 세계 우수 전동공구 업체들을 제치고 시장점유율 10%로 1위를 달성했으며, 6인치와 7인치 그라인더 전동공구 매출 또한 크게 신장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지역 영업호조는 LG산전이 다양하고 차별화된 마케팅전략으로 중국지역을 적극적으로 공략한 결과이다.

LG산전은 지난 4월 9일부터 11일까지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2001 春季全國五金商品交易會(춘계공구무역전시회)」에 참가하여 대리점 100여개 업체를 초청, 세미나, 신제품 소개 등 다양한 프로모션 활동을 펼쳤다.

또한, LG산전은 중국 지역내 대리점 대상의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 실적을 달성할 경우 TV 등 경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 대리점 고객들을 국내

로 초청하여 공장 견학, 세미나 등의 이벤트 행사를 지난 해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해외 대리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LG산전은 이 달에도 중국 장쑤성(江蘇省) 우시(無錫)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올해 중국지역에서 10여건의 프로모션을 계획하고 있어 중국시장에서 LG산전 전동공구의 입지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두산중공업(주)

### 대형 크레인 美 수출

두산중공업(사장 尹永錫)이 국내 최초로 중량 1,200톤의 대형 연속식 석탄하역기(CSU-Continuous ship unloader)를 미국에 수출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4월 8일 중량 1,200톤, 길이 72m, 높이 45m의 대형 석탄하역기를 완전조립상태로 선적, 창원공장 자체부두를 통해 미국 현지로 출하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하된 석탄하역기는 두산중공업이 지난 '99년 5월 일괄도급방식으로 미국 잭슨빌 전력청으로부터 수주한 것으로, 연속식 버킷과 컨베이어(Bucket Elevator Type)를 통해 시간당 1,500톤의 석탄을 배에서 저장고까지 운반할 수 있다.

특히 이 설비는 내부에 설치된 84

개의 버킷으로 퍼 올린 석탄을 밀폐된 컨베이어를 통해 운반함으로써 석탄 운반과 하역 시에 발생하는 분진 및 낙탄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첨단 설비다.

또한, 이 설비는 첨단 전자제어 설비인 PLC(Programable logic controller) 방식을 갖추고 있어 원격으로 무선조정이 가능하며, 국내에는 하동, 삼천포, 당진 화력발전소에 8기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이날 출하된 석탄하역기는 약 45일간의 해상운송을 거쳐 오는 5월 중순경 미국 플로리다주 잭슨빌항에 인접한 발전소(Northside Repowering Power Plant)에 설치될 예정이다.

한편, 두산중공업은 지난 해 컨테이너 크레인 4기를 잭슨빌항에 성공적으로 제작·설치한데 이어, 이번에 석탄하역기를 성공적으로 제작 출하함으로써 미국 내 크레인 시장에서 입지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대한전기학회

'전기기기 및 에너지변환시스템 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대한전기학회 산하 '전기기기 및 에너지변환시스템학회'는 지난

4월 19일부터 3일간 제주에서 '2001년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해 학회 구조 개편으로 새로 출범한 부문학회 체제에서의 첫번째 학술행사다.

이번 대회에서는 학계와 산업계가 170여편의 최신 연구논문 및 기술개발 성과가 발표되었다. 특히 해외 전문가들이 초고압 GCB/GIS 관련기술과 고속 회전기 관련기술에 관한 26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또 에너지관리공단 이인영 처장의 '대체에너지 산업정책 동향' 등 4개 주제에 관한 초청 강연회와 소형정밀모터, 초고압 전력기기 등 5개 품목의 전기산업 정책포럼도 함께 열렸다.

4월 21일에는 제주도발전소와 풍력발전시범단지를 견학했다.

백수현 학회장은 "이번 학술회에는 산·학·연은 물론 산자부와 과기부, 건교부 등 정부부처 실무진들도 폭넓게 참석하여 국내 전기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 현대중공업(주)

10년간 변함없는 장애아 사랑

"오늘 만큼은 가슴 활짝 펴고 하늘 높이 날아보자."

현대중공업(대표 : 최길선)이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울산 지역 장애아 866명과 학부모, 교사 등 1,600여명을 경북 경주에 있는 경주월드에 초청,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였다.

「현대 오뚝이 잔치」로 이름하여 올해로 10년째 실시해 온 장애인의 날 행사에는 울산지역 장애아 특수학교인 태연학교와 메아리학교를 비롯 일반학교의 특수반 학생, 특수아놀이교육원 어린이 등이 참가해 경주월드에서 각종 놀이시설과 레크리에이션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現代重工業은 지난 '91년 장애아동을 위한 각종 교육 및 놀이시설인 「현대특수아놀이원」을 개원해 장애아들을 위한 재활교육 등 특수교육에 힘써오고 있다.

또한 '92년과 '93년에도 장애어린이와 부모, 교사를 초청한 미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역 장애아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이며 '장애아들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오고 있다.

現代重工業 여사원 모임인 다모아회도 지난 '97년부터 장애인을 위한 「1인 1천원 모금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을 비롯 「한마음 사랑회」, 「손사랑회」, 「정우회」 등 사내 각종 서클도 장애아들을 위해 활발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